

미래 직업기초능력 1위 '위기대처능력'

기계와의 상호작용 업무능력 중요해져
정보의 홍수 속 인지적 수용력 관리 요구돼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가운데 미래 직업세계에서 살아 남기 위한 직업기초능력 1위로 '위기대처능력'이 뽑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0년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글로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래 트렌드를 전망하는 조사업체인 쉐프린이 뽑은 '2030년까지 생존 가능한 50대 글로벌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해 실시했다. 직업기초능력 15개를 선정할 뒤, 각각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전문가 250여명이 과거(5년 전), 현재, 미래(10년 후) 시점에서의 중

요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열정'을 과거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1위로는 '위기대처능력'을 꼽았다. 특히 '위기대처능력'은 미래는 물론 과거 기준으로 2위, 현재 기준으로 1위로 꼽혀 시대를 막론하고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미래 중요성이 높은 직업기초능력 2위는 대응력, 3위는 미래 예측력, 4위는 인지적 부담관리, 5위는 기계협업능력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예측력' '인지적 부담관리' '기계협업능력'은 과거에 비해 미래에서 중요성 순위

장단기발전특별위원회 구성키로

강원도간호사회 총회 분회 회칙 정비

강원도간호사회(회장 장희정)는 제3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 2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던 강원도간호사회는 장단기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100주년을 향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분회의 회칙을 검토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회원들을 위한 보수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다.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역사회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학단체와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와 교류하는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9월에 강릉에서 개최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와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8억813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강원도간호사회회는 동결했다. 개최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과 양민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축사를 했다. 총회에서는 우수 회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강원도지사상=유춘희(삼척의료원 간호과장) △대한간호협회회장상=김순남(강릉의료원 간호과장) △공로상=김미정(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파트장) 최은자(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간호팀장) 최은희(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간호차장) △삼사상=이상민(춘천시의회 의원). 최유주 기자 yjchoi@

한국아동간호학회 교수역량 개발 세미나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 안영미)는 교수역량 개발 세미나를 '통합형 국가시범대비 문항개발과 아동간호학 교과운영' 주제로 2월 21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주기 인증평가 대비: 아동간호학 교과목 운영 사례 △통합적 간호지식에 근거한 국가고시 사례형 문항 개발 및 평가 △통합형 지식에 근거한 문항의 올바른 문항출제와 문항분석 △성숙기반 교육과정: 학습성과 적용 전략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안영미 회장은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 교수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유용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감염관리간호사회 총회 ... 감염관리 실무자 연수교육 강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회장 김성란)는 제24회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2월 21일 열고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간호사회는 올해 감염관리 실무자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키로 했다. '소독과 멸균' 책에 실데이터 결과와 유행 등을 추가해 개정판을 발간한다. 감염관리간호사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학술대회를 2회 열고, 회원들의 해외학회 및 연수과정 참가를 지원한다.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및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감염관리 관련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소식지를 발간하고, 대내외 홍보활동과 체계적인 회원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와 전략' 주제로 열렸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훈련 준비부터 실천까지의 사례를 공유했다. '의료기관 소독과 멸균 실태' '감염관리간호사의 경력단계별 역량개발' 등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감염관리 사례 및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주혜진 기자 hjoo@



병원간호사회 임상간호학술대회 개최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제34회 임상간호학술대회를 2월 26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임상제1강의실에서 개최했다. 2018년에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진행한 연구 중 우수논문 7편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우수 논문 포스터 18편이 전시됐다. △최우수상(상금 150만원)= '근거기반간호 실무지침 수용개작 - 습기관련 피부손상의 예방과 관리'(삼성서울병원 백규원 외 7인) △우수상(상금 70만원)= '간호사의 교대근무유형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 피로, 업무오류건수 비교'(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외 7인) △장려상(상금 50만원)= '국내 응급실 간호사의 폭력경험 실태와 폭력반응, 전문직 삶의 질과의 관계'(서울성모병원 주은아 외 4인) '최후 수술 후 껌씹기가 복부 불편감, 변 배출시간과 변비 정도에 미치는 효과'(서울아산병원 김형자 외 1인) '태블릿 PC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이 내시경적 절제술을 받는 조기 위암 환자의 신체적 불편감, 불확실성, 상태불안 및 간호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동아대병원 김미경 외 1인) '폐결핵 환자의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국립목포병원 김민서 외 1인) '혈액투석 환자의 연령에 따른 자가관리, 생리적 지표에 관한 연구'(삼성서울병원 이경미 외 2인). 이날 발표된 논문은 '임상간호연구' 제24권 1~3호에 실렸다.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www.khna.or.kr) 임상간호연구 코너에서도 볼 수 있다. 논문 발표에 앞서 '혼합연구방법론을 이용한 임상간호연구' 주제로 서연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특강을 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대규모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주력

보건교사회 총회 학교보건 관련 법 개정 추진

보건교사회(회장 차미향)는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 26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보건교사회는 올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를 계속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데 주력키로 뜻을 모았다.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학교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보건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검토와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 필수교과 추진을 위한 정책활동을 펼친다. 보건교사 임의지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활동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2억393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보건교사회회는 동결했다. 개최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곽윤희 간호제1부회장 대



마산대 간호학과 산학협력 인재포럼

마산대 간호학과(학부장 정영숙)는 산학협력 HR포럼을 2월 13일 개최했다. 경상남도 내 삼성장원병원, 한마음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창원병원, 창원보건소 등의 간호부서장 및 수간호사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영실 학과장이 '성가치 기반 현장실습 개선과 취업역량강화 전략'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실 학과장은 "간호학과와 현장실습 기관은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지속하는 것이 필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9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82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서울시 (02) 2261-1711	병 원 간 호 사 회 (02) 2261-1711
대전시 (042) 525-7318	보 건 교 사 회 (02) 525-7318
광주시 (062) 2296-7677	보 건 진 료 소 정 회 (02) 2296-7677
마 취 간 호 사 회 (02) 527-3990	010-2061-6471
보 험 심 사 간 호 사 회 (02) 2263-1959	
산 업 간 호 사 회 (02) 716-9030	
가 정 간 호 사 회 (02) 2267-5688	
정 신 간 호 사 회 (02) 425-1271	
노 인 간 호 사 회 (052) 230-07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

근대 간호교육을 통해 배출된 간호사들은 전문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으며 지식인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암흑한 시기 뜨거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구국의 일념으로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은 독립만세운동, 군자금 모집, 직심사활동, 사회운동, 첩보활동, 비밀연락, 독립군 규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대해산 항전에서 부상병 간호에 헌신했으며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통해 자주독립 의지를 보여줬고 서울 중포 앞 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관우회를 통해 일제에 항거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용정, 중국 상해 등 국외에서도 항일운동과 간호사 양성교육에 힘썼습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대한간호협회는 위대한 간호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전에서 한국인 병사들을 간호한 경험은 한국 간호역사에서 획을 긋는 일이었다. 과거에는 집 안에만 갇혀 있던 여자들이 위기 속에서 심지어 남자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 사건이었다.”

군대해산 상황 기록/에드먼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장

“세브란스병원에 부상자들이 끊임없이 도착했다. 모두가 동포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다. 특히 한국인 여자 간호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기력과 능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The Korea Mission Field” 기고문 / J. W. Hodge

“온통 대한의 국민이 독립만세를 외쳐 부르고 있는데, 우리 간호사라고 가만히 앉아서 남의 일같이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간우회 만세사건 주도한 박자혜 간호사

“새해부터는 더욱이 첫째로 부녀자들의 문맹퇴치와 농촌의 개발을 중심으로 힘쓰려 합니다. 입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여자들을 위하여 순회강연도 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문고로 만들어 전 조선적으로 선전을 하려고 합니다.”

간우회 초대 중앙집행위원장 정종명 간호사

법관: 내가 무슨 생각으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느냐?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관대히 용서해 주겠다.

이아주: 우리는 조선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앞으로도 계속 독립만세를 외칠 것이요.

법관: 언제까지?

이아주: 조선이 독립할 때까지요.

학생만세운동 후 법정에서 선 이아주 간호사

“체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독립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기쁘게 생각했다. 조선인이 독립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면 일본 정부나 세계 각국도 알게 될 것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학생만세운동으로 체포된 탁명숙 간호사

“오른손에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고, 오른손이 잘려 떨어지면 이를 왼손으로 흔들고, 다시 왼손을 잘리어 떨어지면 입에 물고 흔들고, 마침내 참살된 자 초 차 있고, 우리 여자라도 마땅히 분기하여 최후까지 싸우자.”

블라디보스크에서 연설한 체계복 간호사